

###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십중대계(十重大戒)

십중대계란 열 가지의 무겁고 큰 계율이란 의미다. 다른 말로는 금계(禁戒)라고도 한다. <법망경>에서 강조하는 계율인데 <법망경>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불교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이 경전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신라시대에는 많은 스님들이 이 경전에 대한 주석을 했다.

계를 조항은 열 가지이지만 전반부의 다섯 가지는 5계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집만 소개하자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탐내고 욕설하지 말라. 상내지 말고 참회하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등이다.

원래 5계에서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등의 네 가지는 근본 바탕이 되는 계율이라는 의미에서 성제(性戒)라 부른다. 성제라 지칭하는 것은 불교 신도든 아니든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것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차계(遮戒)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보편을 두고 있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 생활의 기본은 자신을 낮추는 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한다. 자신을 칭찬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자신의 발전에는 독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단체의 화합과 원만한 사회생활의 지름길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탐내고 욕설하지 말라’는 몸과 입과 마음의 3업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지나친 욕망은 만 가지 재단이 들어오는 문이란 격언이 있다. 또한 욕설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화가 나지 않으면 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교도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기실 알기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을 하라 강조하는 것이다.

‘상내지 말고 참회하라’는 것은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다. 일체의 사안에 대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라는 전제에서 참회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회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몸과 마음

### 열가지의 큰계율... 일명 '금계'

### 생명존중과 청정한 생활 강조

음을 뜻한다. 즉 취하지 않을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 마실 수도 있다. 원래 5계는 자이나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와 자이나교가 다른 점은 전자의 경우 술을 마시지 말것을, 후자의 경우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불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무소유 보다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십중대계에서 5계는 이미 말한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살펴보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승단의 화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참회하는 사람은 원한 만만이라도 용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타인에 대한 말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면 그것도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된다. 사찰 신도회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계가 이 조항이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율이다. 부족한 것을 남친 것으로, 깨달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등 허의

이 지극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 빼여 새기는 것이 참회이다. 이러한 때 중생을 사랑 하는 무조건적인 자비심이 발생하며,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수 있고, 부모형제에게 호순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과 생활을 통해 일체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살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각자의 내면에 살아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라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그런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체의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지녀야 한다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이상에서 열 가지 무거운 죄에 대해 살펴봤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무한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작은 실천 속에서 시작된다. 눈을 늘 생각해야 한다.

<본지 삼일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성운스님이 9월15일 해인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문하고 있다.



◇성운스님이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해인사 방장·왼쪽)에게 문화교류협의회서와 <불광대장경>을 전달하고 있다.

## 생활의 순간순간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들은 각자 성씨와 성별도 다르며, 출신환경도 다르지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삼보(三寶)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보의 해석과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삼보(佛寶)가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듯이 대지에 무한히 가득한 빛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춘다는 뜻의 불광보조(佛光普照)라는 말을 합니다. 빛이 없다면 인간세상은 암흑과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부처님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쇠가모니부처님은 상적광 정토에 계신다고도 하고 허공법계 아니계신 곳 없다고도 하지만 상적광 정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끝이 없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을 그려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로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부처님이 당신의 마음과 어떻게 이어져 있고, 그 분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승이 출가 65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처음 느끼게 된 것은 바로, 부처님은 우리들의 느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낌을 인식하는 때 순간마다 부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부처님과 함께 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의 느낌에서 항상 함께 하는가를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행주좌와와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부처님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숨쉬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행하는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 평생의 수행생활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이 항상 함께 숨쉬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의 빛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힘이란 바로 집안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안을 환히 비추어서 광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안전한 느낌을 하게 하고, 우리들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것과

佛=어두운 인간세상 두루비취주는 빛

法=무명해갈·무한한 업장 씻어주는 물

僧=자비·지혜 계발하여 복짓는 발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을 알게 되며, 이러한 마음의 빛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비추면 모든 장애가 저절로 밝혀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보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삼보중 하나입니다. 그 법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부처님은 바로 빛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법보의 법은 바로 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의 물 즉 법수(法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무명을 해갈시켜 주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법수는 우리의 무한한 업장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나와 함을 굳세게 해 줍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성장해서 더 성숙하도록 해주는 것이 법입니다.

일단 평상시에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어느날 단수가 되면 물의 소중함을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도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일단 법을 가까이

하고 지니게 되면, 참회 발원과 수행을 통해 모든 이들의 삶에 윤택함을 더해 주게 됩니다. 법이 없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공허한 삶만 남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을 빛에 비유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승 삼보의 승은 무엇에다 비유할까요. 바로 발에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스님들은 복을 짓는 발이라는 뜻의 복전승(福田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은 바로 황폐한 황무지 땅을 개밭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밭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 현대적 장엄·음성공양·삼보 율화

### 불가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불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증효

귀신병등 병의로 고통받는다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성이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참금 : 숙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산산 아래 **여래사**

주최 심묵 법장 합창 (011-245-5467)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계(業)와 영통(靈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름에 따라 디를 수 있음)

- 조상신과 중령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령신도 단병에 보내는 도력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어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미구에 놀리고 환형으로 잠무 이루는 분
- 병마더 가워놀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안에서 혼자 중령기다들다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생일마다 무뎀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 자비정사 영험도량

## 02)3453-3421

###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출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 숨차지 않고 활달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림과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을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히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9월 27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문의 : 양 현숙 011)222-3329

### 백인불자 108에 만일정사 법왕정사 수행 중심 도량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리산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리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리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중점마차 전화 요망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임하는 지친 입원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활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삼, 조끼, 바지 W 160,000</li> <li>동방, 바지 W 160,000</li> <li>투투박 W 140,000</li> <li>W 6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직(축 50%)</li> <li>광택</li> <li>순면(무늬없는 먹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김이 없고 색이 오래가는 재질 A. W 130,000 B. W 160,000</li> <li>미 W 160,000</li> <li>모직 W 16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본도량</li> <li>자비나랑</li> <li>원부</li> </ul>	

₩ 20,000 ~ 35,000원

※ 정삼, 기삼, 바방 및 기타리뷰는 뒷줄부분 참조합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서야비길 11-1 동부영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연세인사계열영품 40%할인판매

